

2021 THEM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2-3학년 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11:00AM, 2: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김샘 장로 2부/김성균 집사 3부/김병찬 장로 4부/이현재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빌립보서 4:14-17 All together 다같이
4부/사무엘상 13:1-23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기쁨으로 리셋(24) 연금(annuity)같이 돌아온 현금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기다림이 만남이다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믿음 in '21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시간당 얼마 버십니까?

How Much Do You Make An Hour?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레스토랑을 관리하는 매니저에게 들은 말입니다. 요즘 식당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주말에 월급을 주면 그 다음날 이유 없이 결석하는 직원들이 많아 식당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늘 종업원이 갑자기 안 나오는 때를 생각해서 비상 대기조로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시간당 급여를 올려주기도 해 봤지만,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 잘하는 사람을 월급을 더 주는 한이 있어도 스카우트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운동을 잘하는 프로 선수를 구단에서 연봉을 올려 스카우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레이커스 농구선수 르브론 제임스는 연봉이 3천140만 달러이고 후원 계약을 합치면 약 1,000만 불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파리 생제르맹 FC로 이적한 리오넬 메시 선수의 연봉은 4,5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어느 분이 재미있는 계산을 했는데, 제임스 선수는 잠을 자는 한 시간에도 약 4,000불, 메시 선수가 약 5,000불 이상을 받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잠을 자도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단순히 재미있는 계산이 아니라,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위해 일한 시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퇴근 후 집에서 생활하고, 여가를 선용하고 심지어 잠자며 휴식을 취하는 것도 다음날 출근하여 일하는 능률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무실에서의 업무 능력만 아니라, 자녀들과의 관계, 여가를 즐기며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 등 총체적인 능력에 대한 평가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성도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이 되어야 할까요? 성도가 출석하고 있는 각자의 교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성도들 각자가 생각하는 나름의 계산법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섬기는 그 시간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도 한결같이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말과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가정 직장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관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가도 샌다는 우리나라 속담은 이 부분에 대한 교훈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밥 먹듯이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바가지는 어디에선가 분명히 샌니다. 한번 은혜받고 감동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 건강한 습관이 배기까지 받은 은혜를 모든 삶의 구석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가격입니다.

This is what I heard from a restaurant manager: these days it is so hard to find workers. When he gives them their pay on the weekend, then next day many are absent for no reason. This makes running a restaurant very difficult. So the owner must always be on standby just in case some employees do no-show. He tried raising their hourly wages, but to no avail. We want to scout good workers even if it means paying them more. It is like a high-performing athlete being scouted by a professional team at a higher salary. Calculating a person's value into a dollar amount is nothing new. LeBron James of L.A. Lakers: his annual salary is \$31.4 million plus additional \$10 million from his endorsements. Lionel Messi, a professional soccer player who recently moved to Paris Saint-Germain F.C.: his annual salary is \$45 million. Someone did an interesting calculation. While sleeping, James makes about \$4,000 an hour, and Messi about \$5,000 an hour. It may sound strange that one can make money for sleeping. But perhaps it is not simply an interesting calculation, rather something we should seriously consider. Not just the hours that we work for a company, but also our after-work life at home, making a good use of our leisure time, and getting the needed rest with a sleep must be considered. That is because these are not irrelevant; because when we return to work, these factors influence our productivity. From this we learn the lesson that not just the work productivity, but an evaluation of our overall productivity needs to be considered - such as relationships with our children, caring for our mental health while enjoying the leisure time, and etc.

How should we measure the value of a believer? His value is probably recognized by his good influences on his local church. What are “good influences”? Although each of the believers probably has his own method of calculating such value, it involves not only the amount of time spent serving at church, but also his speech and attitude of life that consistently show Christ's characters both at his home and at his work. This is not a question of which is more important - church, family, or work - but a question of consistency in our lives. This lesson is conveyed by an old Korean adage: “a bowl that leaks at home, also leaks in the field.” Unless we constantly train ourselves to think and act in God-centered and the Word-centered ways, our bowl is surely leaking somewhere. It is not enough just once to receive grace and moved by it; it is important to let the grace of God flow through all the deep recesses of our lives until the healthy habits take root in our lives. That is the price of a believer.


빌립보서 강해 -제24편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기쁨으로

리셋

연금(annuity)같이 돌아온 현금
(빌 4:14-17)

1. 14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 하였도다" 격려와 감사를 표합니다. 괴로움에 참여하였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14-15절) 우리도 교회의 선한 사역에 '참여'하는 파트너십이 공유하고 있는지요?

적용하기



2.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참여"로 감사하며, 다시 한번 자신이 더 현금을 구하는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다음 구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17절 내가 _____ 아니요

18절 내게는 _____ 또 풍부한지라...

3. 바울은 자기가 받은 선물 보다는 선물을 보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함에 칭찬하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17b를 읽으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용어로 바꾸어 읽어 보십시오.

4. 현금을 받은 바울보다, 현금을 한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과실"로 표현합니다. 무슨 뜻인지 다음 참고 구절을 읽고 답해 보십시오.(참고/눅 6:38, 눅 18:28-29)

5. 믿음 없는 자들의 도네이션과 믿음 있는 성도의 현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마 5:47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2) 마 10:8 ...너희가 () 받았으니 () 주라

3) 롬 12:4-8 우리가 한 몸에 ()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 적용찬양: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나의 모습 나의 소유



2021 모든 셀목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의 "갯블레스유 셀"

받은 축복을 다 같이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기도하는 셀입니다. 셀을 시작할 때 서먹서먹하고 수줍었지만 즐거운 식탁의 교제와 진솔한 나눔을 통해 점점 마음이 열리고 편안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행사 때마다 발 벗고 나서서 참석하시는 셀식구들이 우리 셀의 자랑입니다. 교회 운동회 때 섯트 배구선수로 지원해 엄청난 활약을 하셨던 셀식구들, 팬데믹 중 '우리 셀이 뭉쳤다' 코너의 긴급 섭외 요청에 코로나와 카메라 공포증을 이겨가며 최고의 요리실력을 보여주셨던 셀식구들, 처음 열리는 '추수 감사축제'에 래퍼와 댄서로 기꺼이 자원하셔서 성황리에 공연하신 셀식구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와 믿음의 순종, 이 모든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작년, 예상치 못한 팬데믹으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때, 저희 셀은 매주 온라인으로 셀모임을 가지면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교제하였습니다.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스크린으로 전해지는 훈훈한 사랑을 느끼며 이어지는 현장 셀모임에서도 은혜와 웃음 넘치는 행복한 만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갯블레스유 셀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후 이어지는 셀모임에서의 말씀 나눔, 셀카 토크방에서 매일 나누는 큐티, 안수집사님이 되어서 땀 뻘뻘 주차 봉사를 섬기시고, 전도폭발의 훈련자가 되어 더욱더 주님을 알리는데 힘쓰고, 셀목자로 섬김을 결단하셨고, 새로운 지역에 이주를 하여 저희 셀에서 나눈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셀식구들의 고난을 함께 나누고 보듬고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 조출하지만 음식을 함

께 나누며 마음을 열고 이해와 배려하는 우리 셀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은 셀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넘치는 축복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나누려 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며, 우리 셀을 통하여 축복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9]"

이우용 집사

위로의 "힐링캠프 셀"

이름처럼 셀모임을 통해 힐링을 얻을 수 있는 셀이 되고자 선임 셀목자께서 정하신 이름입니다. 기존 멤버부터 올해 함께하게 된 새가족들까지 10가정이나 되는 대가족입니다. 어느덧 저희 부부가 셀목자로 섬긴 지도 4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셀목자로 섬기면서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셀모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교제가 활발해야 된다는 강박감이 있었는지 셀모임을 어떻게 준비할까하는 의견의 대립부터 간식 준비 등

의 사소한 대립까지... 셀모임을 이끌어 가야 할 우리 부부가 먼저 갈등으로 대립했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넘치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시간을 거쳐 가면서 우리가 셀목자를 하게 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당시 베델교회에 등록한 지 일여 년 정도의 시점이었고,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쌓여갔고, 확실한 정착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셀목자로 권유받았을 때, 셀모임과 셀식구를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저희 부부가 사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통해 받은 사랑과 위로는 결국 단기적일 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한 사랑과 위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힐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저희 부부는 셀모임을 두고 가끔씩 대립각을 세우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모임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셀식구들이 많이 나와 풍성한 교제가 있을 때나 혹은 한 식구만 나와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셀모임에 못 나온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조차도 셀모임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전해져서 이 또한 감사입니다.

셀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면 괜히 좋습니다. 셀식구와 셀목자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새로운 셀목자로 헌신하겠다는 가정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저희 셀은 분가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을 통한 힐링이 계속되는 셀, 그리고 계속 분가할 수 있는 셀이 되는 힐링캠프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형 집사



특별기획(1) "돌파 코로나 베델이 간다"

발걸음마저 멈춘 시간

3개월이면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는 1년 8개월이라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굳게 닫힌 예배의 문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길기만 했던 코로나 숲을 뚫고 나온 베델교회!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앞으로 4주간 되짚어 봅니다.

2020년 1월, Here I am! 이라는 구호와 함께 엘리야 새벽기도회와 이찬수 목사님을 모신 부흥회로 힘차게 시작된 베델의 사역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사태로 전쟁 중에도 닫히지 않았던 예배의 문이 닫히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험시바 새벽 예배와 교육부 및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고, 성도 한 명 없이 텅 빈 예배당에서 드리는 목회진들의 예배에는 눈물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레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된 성도들 역시 집에서 모니터 앞에 모여 앉아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를 드려야 했고,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목회진에서는 일일이 가정방문을 하여 도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성도들과의 소통을 위해 김한요 담임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가 시작되었고,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성도들을 위해 교회의 곳곳을 배경으로 제작된 아침 영상은 성도들에게 큰 희망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낙상으로 오래 투병하시던 고 손인식 목사님의 소천 소식은, 우리에게 큰 아픔과 낙망을 앓게 주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직계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던 당시 상황으로 인해,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큰 안타까움으로 다

가왔습니다. 베델교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큰 기둥이 되어 주셨던 사랑하는 고 손인식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교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기로 하였고, 비록 온라인이었지만 4천여 명이 넘는 분이 접속하여 목사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예배 전면 중단'이라는 사태를 맞아 다양한 시도로 돌파구를 찾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활 주일은 새로운 희망의 불빛이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돌파 코로나 베델이 간다'에서 영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계속]



베델선교 - 조지아

뿌연 안개 걷히는 그 날



저희가 선교사로 파송된 조지아는 기독교 국가로 분류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복음화율은 1.38%에 불과한 미전도 국가입니다. 다

행인 것은 친서구 정책으로 젊은이들이 서양문화에 대해 열려있는지라 현지 교회와 협력하여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장시킬 청소년 캠프 프로그램 등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현지 사역자 및 리더들이 올바른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는 신학 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현지교회와 동역하며, 미래를 짚



어질 청소년들을 향해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내는 'BAM'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돕고 훈련하여 복음과 삶이 함께 이뤄지고, 그로 인해 현지 교회가 자립, 자생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창업, 재능교육, 언어교육 등의 영역으로 나눠 돕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조지아를 사랑하시고, 그 땅을 향한 비전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회적 통제로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조지아를 중심으로 모여 그 주변 국가(러시아, 터키, 중동 지역)의 현지인 리더를 양육하여 자국으로 다시 파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추방되고 갇혀 있는 상황에, 유일하게 조지아 땅을 선교의 확산을 위해 열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도님의 기도 동역이 필요합니다.

김현수 선교사

*11월 20일 험시바 새벽 기도 예배에서 조지아 선교 보고로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1. 복음으로 바로 세워진 현지 지도자와 교회를 통해 복음 전파가 되길 기도합니다.
2. 다양한 'BAM' 사역을 통해 현지교회와 성도들이 자립하고 자족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3. 청소년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4. 조지아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목회자 인터뷰

장지은 전도사



1. 베델교회에 부임한 소감과 사역을 소개해 주세요.

저는 2019년 VBS Conference로 베델교회를 방문한 이후, 베델교회에 대한 사역의 꿈을 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오후,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저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 학교 유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개편 이후 지금은 유아부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음에 감사 드릴뿐입니다.

2. 전도사님의 신앙 배경에 대해 나눠 주세요.

저는 1세대 기독교인이신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난 2세대 기독교인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시며 쏟아지는 수많은 영적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오신 어머니는 현재 선교사님이 되셨고, 저 또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 만난 하나님은 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제 삶을 이끌어가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기독교 교육학과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하게 하시며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셨고, 다양한 교단을 접하게 하시며 신앙의 균형을 세워나가게 하셨습니다. 현재는 기독교 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박사과정 진학 중입니다.

3.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알려주세요.

복음을 한 문장으로 잘 담아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처음 유년부, 유아부를 맡았을 때도 이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만약 단 한 번의 설교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이 말씀으로 전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의 씨앗이 심어질 때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이 긴 말씀을 술술 잘 외우는 유아부 친구들을 보며, 앞으로 그 가운데 심어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 앞으로 전도사님의 사역의 비전과 각오를 들려주세요.

저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의 존재 이유인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마음 담아 기도하고, 집중하여 말씀을 들으며, 진지하게 예배에 임합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말씀 안에 예배자로 서도록 돕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예배를 위해 교구 및 자료를 연구하고 끊임없이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평생 교육원-QTin 강좌(4)

QT의 유익

Go Deeper & Go Higher! 2022년도 슬로건입니다. 어떻게 더 깊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나님과의 나눔을 더욱 더 깊이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의 폭도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쉼 공동체가 더 깊어지고 넓어져, 온 교회가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QT와 더불어 말씀의 깊이는 묵상이 이루어지고, 나눔의 폭이 넓어질 때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유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Higher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QT를 통해서 부부와 또 가정이 함께하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요, 한 방향으로 가는 한 비전을 향해서 가는 공동체입니다. 부부가 되기 전에는 서로를 바

라보지만, 부부가 된 이후에는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부부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손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QT를 통해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부부의 하나됨을 체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신비한 영적 연합체 Spiritual Union을 이루는 부부가 되는 유익을 얻길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많은 교훈을 자녀에게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QT는 영적 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T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이, 그리고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더 깊이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식사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며 짧은 시간이라도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나누면, 어마어

마한 영적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되는 그 유익을 누리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멘텀을 놓치지 말고 나아갑시다. QT를 통해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 닮아가고 주님 본받는 모습으로 향상되어지고, 나아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하나의 공동체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속에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한요 목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정승락 목사
 믿음 목장/예배/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기도: 이충경 목사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화평 목장/베델워십/샬: 박경철 목사
 새가족/경조: 한순교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예산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산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산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아부: 장지은(Jieun)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한어권: 정티나 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안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지역광고

위러브 찬양 집회

은혜로운 찬양과 예배를 위한 영상으로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국의 유명 찬양팀 [위러브] 초청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팬데믹으로 찬양 집회나 수련회 등이 많이 취소되었던 가운데 열렸던 "목장별 추수 감사 축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더운 여름날의 생수와도 같았습니다. 그 은혜의 물결이 이번 위러브 찬양 집회로 이어져, 베델교회를 넘어 이 지역 사회의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공감하시네", "시간을 뚫고", "입례" 등의 찬양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위러브 찬양팀은 한국에서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위로와 주고, 젊은 세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귀한 찬양팀입니다. 베델의 성도님들께서 주위에 있는 이웃분들과 함께 이 찬양 집회에 참석하셔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픈 집회로 진행되므로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하심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일시/시간: 12월 12일(주일), 오후 7시

▶ 장소: 베델교회 본당



*위러브 영상보기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2월) I

12/12: ①부-김양환	②부-김수명	③부-김수열	④부-이예지
12/19: ①부-김인권	②부-김재훈	③부-김정욱	④부-김준희
12/26: ①부-김정윤	②부-김정태	③부-김종학	④부-니승채

헬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12,1월) I

12/11: 김건중 12/18: 김병희 12/25: 성탄예배 1/1: 송구영신예배

강단꽃(12월) I

12/5: 송상희, 한순교 12/12: 박원식 12/19: 박중현 12/26: 김학남

선교후원

[팍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I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 I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I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I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 I 유한성(유영옥) 기니비사우 I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I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I 장이삭(정이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I 허익현(김영중) 몽골 I 을지바트(민애경), Kathy Ribbs 베트남 I 성결(양선) 온두라스 I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I 박민수(이순영) 일본 I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I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I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I 황광인(황영숙) 태국 I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I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I 루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김예평(김진영)

*선교기관 I 나눔선교회, 네이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리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I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I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선교 작성 헌금(매월 첫째 주일) - 노란색 봉투로!** 오늘은 각 성도님께서 올해에 작성하신 선교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 **예배 후 즉시 출차/주차증 발급 안내** 베델 캠퍼스는 주차증이 있으신 성도님들에 한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며 비전주차장(새벽 5시 30분-오후 1시 30분까지 셔틀 운행)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올 말까지 2020년 주차증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새롭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차사무실로 오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인총회** 2021년 교인총회(임직자 투표)가 12월 11일(토) 오전 7시30분 토요 헬시바 기도회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 **위러브 찬양집회** 한국에서 많은 이들에게 찬양으로 사랑을 받고있는 WELOVE 찬양팀과 함께하는 찬양집회가 다음주 주일(12월)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열리게됩니다. 함께 참석 해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바랍니다.

◆ **BTV 특집 다큐멘터리 '돌파 코로나-베델이 간다' 방송** 코로나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과 변화를 베델 교회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여 지금까지 지내왔는지를 보는 특집 기획 다큐 '돌파 코로나-베델이 간다' 두번째 시간이 이번 주요일에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오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일시/유튜브 주소: 12월 8일(수) 오전 10시, youtube.com/bethelkoreanchurch

◆ **셀모임 겨울 방학** 12월 6일(월)부터 2월 6일(토)까지 겨울방학을 갖게됩니다.

◆ **새가족 환영회** 팬데믹 가운데 온라인으로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자녀 포함)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를 엽니다. 베델교회의 사역과 목회자 소개, 그리고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시/장소: 12월 16일(목) 오후 7시, 베델교회 1학년 채플(구식당)

문의: 최주상 장로 (949)290-0717, 이길수 집사 (714)328-3350

◆ **베델 BAM훈련 종강모임** 12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종강 모임을 갖습니다. 훈련자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장소/문의: 12월 9일(목) 오후 7시, 비전채플, 박지학 집사 (217)390-4017

◆ **55차 전도폭발 종강예배** 그동안의 결신의 열매들을 보고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는 시간을 갖으려고 합니다.

일시/장소/문의: 12월 7일(화) 저녁 7시, 비전채플, 주용중 집사 (949)812-2906

대상: 기도 후원자, 훈련자, 준훈련자, 훈련생, 대상자, 마음으로 함께하신 모든 분

◆ **2022년 신입임직자 사관학교** 2022년에 새로 임직하시는 사역장로, 안수집사, 사역권사께서는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입 임직자는 2주에 걸쳐 베델교회 사역을 참관하게 되오니 준비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12월 17일(금)-18일(토), 갈릴리 수양관

사역 참관: 19일(주일), 26일(주일) 오전 11시에 교회학교 체크인 부스 앞에서 모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행(17일) 때 공지 됩니다.

*참석을 못하실 경우는 보강수업을 받게 됩니다.

◆ **교육부 교사 감사패 수여** 오늘(5일) 주일예배 2부때 교회학교/중고등부 교사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랜시간 한결같이 자녀들과 다음세대를 위해 헌신해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BYM 중고등부 연합 겨울 수련회** 자녀들이 서로를 알아가며 예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련회에 많은 신청 부탁 드립니다. 신청은 다음 주일(12일)까지 받습니다.

등록: BYM 홈페이지 bethel1united.org/retreat

날짜/장소/대상: 12월 27일(월)-12월 29일(수), Irvine Ranch, 6-12학년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여옥제 목사 (818)270-5454

◆ **교회학교 성탄절 특별 예배** 성탄절을 맞이하여 각 부서에서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축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날짜: 12월 19일(주일) 2,3부

◆ **교회학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 Donation** 기증해 주시는 모든 장식품은 각 부서 트리를 꾸미는데 사용 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상: K-1, 유년부, 초등부

◆ **교회학교 교사만찬** 지난 1년간 수고해 주신 모든 교사 분들께 감사드리며 각 부서에서 교사 만찬이 있습니다. 자세한 날짜는 각 부서 팀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직 예배** 2022년 신입 임직자들의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일시/장소: 12월 19일 주일 오후 4시30분, 본당

◆ **헌금 내역서** 2021년도 헌금내역이 교적에 기재된 집 주소로 발송됩니다. 주소 변경이 필요하신 분은 헌금봉투 아래 주소 변경란에 기재해 주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bethel@bkc.org

◆ **2022 목회진 정책 수양회 안내** 12월 6일(월) 베델의 목회진들이 2022년을 준비하며 정책 수양회를 가지오니 기도 부탁드립니다.

◆ **축하해 주세요**

여옥제/강진경 목사 가정에 딸 소원(Joelle Sowon Yeo)가 12월 2일(목)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전숙자 성도님(김영진 권사의 모친, 김병찬 장로의 장모)께서 11월 29일(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신박장 집사님(박부옥 권사의 남편)께서 12월 3일(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김순석 집사님(김성복 집사의 부친, 이완희 집사의 장인)께서 12월 3일(금)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희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정지혜 자매,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기쁨으로



리셋

Offering Returned like an Annuity (Philippians 4:14-17)

1. In Verse 14, Paul expresses encouragement and gratitude to the Philippian church by saying, "Yet it was good of you to share in my troubles." What does he mean when he says to share in his troubles? (Vv14-15) Do you also "share" a partnership with the church in doing good deeds?

2. Paul is grateful for the "sharing" of the Philippian church, and he once again reveals that he has no intention to ask for more offerings. Look at what Paul says in the following verses.

Verse 17 Not that I _____;

Verse 18 I _____ and have more than enough.

3. Paul said he didn't want the gifts for himself, rather he desired those gifts to be credited to the Philippians' account. Read Verse 17b and rephrase it in your everyday language.

4. Paul expressed he desired for the "fruit" to be credited to the believers who had sent offerings rather than to him who received them. Read the following verses and answer what it means.
(Ref/ Luke 6:38, Luke 18:28-29)

5.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donations of nonbelievers and the offerings of believers?

1) Matthew 5:47 If you greet only your own people, what are you doing more ()?
Do not even pagans do that?

2) Matthew 10:8 () you have received; () give.

3) Romans 12:4-8 For just as each of us has one body with (), and these members () all have the same function, so in Christ we, though many, form (), and each member belongs to all the others. We have () gifts, according to the grace given to each of us. If your gift is prophesying, then prophesy in accordance with your[a] faith; if it is serving, then serve; if it is teaching, then teach; if it is to encourage, then give encouragement; if it is giving, then give generously; if it is to lead, do it diligently; if it is to show mercy, do it cheerfully.

Apply to Life

